

맑은 물의 흐름처럼 선맥 이어지길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30 가지산 석남사

“산행을 직접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통도사 영취산에서 시작해서, 심불산 간월산 배내고개 넘어오는데, 심불산 심불명원 역새가 기가 막힙니다. 배내 넘어 능동산 넘어오면 사자평이고, 사자평에서 능동산 제약산 천황산 그렇게 있고, 또 능동산에서 넘어오면 가지산 운문산. 거기서 일로 빠지면 문복산, 문복산에서 고헌산. 그게 다 천 고지가 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영남 알프스라하지요. 영남 일대에 서 눈 오는 데 여기뿐입니다. 그 중 가지산이 천이백 고지로 제일 높아요. 지금은 길이 뚫려 터널 빠지면 호박소예요.”



석남사 계곡



덕현리 전경

석남사 아랫마을 덕현리에서 3년 째 식당을 하고 있다는 김준호(53)씨의 말이다. 그런데 이 높은 산들을 넘어 사람들이 다녔다고 한다.

“알음알음 사람들이 언양장 보러 넘어 다녔으니까요. 배내 사람들이 석남제를 넘어 다녔어요.”

지금은 울주군의 번두리처럼 여겨지는 언양이지만, 예전부터 언양장은 인근에서 알아주는 규모의 시장이었다. 지금도 언양 장날이면 양산 기장 경주 등지의 상인들이 찾아들어 시끌벅적한 재래시장을 만든다. 특히 ‘언양 불고기’와 ‘언양 미나리’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미식가들은 불고기에 곁들여 먹는 미나리 맛을 잊지 못하여 찾아들기도 한다.

덕현리는 하천을 중심으로 석리와 행정으로 나뉘고, 석리, 행정과 더불어 소야정, 살터, 삼재 등 작은 단위로 나뉜다. 마을은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지고, 인근에 온천이 있어서, 울산 등지에서 찾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

행정 마을로 들어서니, 민박이라고 불은 간판이 많다. 손님은 드물어 보인다. 회관 앞쪽에서 두 사람이 부추 밭에서 부추 베는 일을 하고 있다.

“십여 년 전에는 민박도 있었는데, 그 때는 있었지. 지금은 없습다. 사람이 없습다. 젊은 사람은 다 돈 벌러 가려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으로, 묵고 삼니다.”

조복수(71)씨의 낫집은 빠르다. “대체 스님들 있을 때, 우리 쪼깐 했을 때, 속가가 있었죠. 내가 열 다섯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라고 말하는 조복수씨와 “울 읍마 닳아서 못 생겼어”라고 말하는 윤경옥(44)씨.

“지천 부처 먹을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해야 된디.” 딸의 딸에 어머니는 부지런히 부추를 베어준다. 윤씨는 이 마을의 민박이 안 되는 이유가 불편함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 샤워 시설이랑 다 돼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를 키웠던 경험을 들려준다.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이었는데, “여기 한 달 키고 봤더니, 아토피가 다 나았어.”

자연만한 백신도 없고, 자연만한 치유약도 없다는 것. 미나리를 파는 윤애자(64)씨는 활짝 웃으며 반긴다. 미나리와 옥수수 삶은 것 등을 파는데, 차들이 지나다 멈춰 사간다고 한다. 언양 미나리의 유명세 때문이다.

“여는 다 생으로 먹는다. 하도 깨끗해놔서.”



석남사 대웅전 앞 삼층사리석탑

석남사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아무런 때도 묻지 않은 것 같다. 고기가 살기에 미안해 할 정도 깨끗하다. 그레도 청정1급수에 사는 녀석들은 슬그머니 보금자리를 펼쳐 놓았다.

“저 위에 쪼만한 가게들이 딱딱딱 붙어 있었지요. 여름에 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절 안에 불당 마을이라고, 마을이 있긴 있었어요. 스물일곱에 왔으니까, 사십사 년 되겠다.”

이정필(71)씨로부터 절 안에 있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결한다.

“불당 마을? 두 집밖에 없습다. 전에 몇 집인지, 내 아내, 모된다. 석남사 절 머슴집 아님고? 절에 일 하니까에, 절 머슴 아님고.”

부산상회 뒤편 주차장 가운데엔 삐뚤빼뚤한 철제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 아마 부산상회 개인 소유의 땅과 절 소유 땅의 경계를 표시한 듯했다.

일주문을 지나 절로 들어간다. 소란스러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한참 만에 깊은 계곡과 엮인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씨가 적힌 표지석이 앙증맞다. 물소리가 희고 시리다. 석축 위에 자리 잡은 석남사는 마을 뒤편에 앉았은 곳이다. 대웅전 앞에는 천 년 전의 삼층 석탑이 있고, 연꽃이 피어 부처님좌를 만들고 있다. 대웅전을 지나면 부도탑이 있다. 안내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선종을 전파한 ‘도의 선사의 사리탑이라고 전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도의 선사는 육조해는 조사의 법을 이은 서당지장 선사의 심인을 받아 우리나라에 남종선종을 최초로 전한 인물이다. 도의 선사는 장흥의 가지산에 머물며 선법을 펴려 하였으나, 그의 선리(禪理)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북쪽으로 가서 설악산 진전사에 40

여년 은거하며, 염거 화상에게 법을 전했다. 장흥의 보림사가 선종 종찰이 된 것은 염거의 뒤를 이은 보조국사 체징에 의해서다. 그러므로 도의 선사가 석남사에 머물렀다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다만 산의 이름이 가지산이므로 이곳에도 가지산문의 선종이 크게 떨쳐 일어났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석남사 뒷산인 가지산은 예전에는 석안산으로 불렸다.

비구니스님들의 도량 석남사, 청아한 독경 소리가 물소리와 섞여 자연스럽다. 오래 전 선승들의 맑은 가르침처럼, 불법을 전하며 흐르는 물, 물의 그치지 않는 흐름처럼 선맥(禪脈)이 이어져 본마음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맑은 향이 퍼졌으면 하고 바라본다.

언양=이대홍(시인·본지 객원기자)

“울산에 고래 돌아와 살기 좋아지길...”

고래를 노래하는 시노래 가수 남미경



고래를 노래하는 시노래 가수 남미경

울주군 언양면 대곡리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암각화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을 그린 그림인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각종 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암각화에는 고래, 물개, 사슴, 호랑이 등 각종 동물의 형상과 사냥을 하거나 배를 탄 사람의 모습, 그물과 작살을 비롯한 각종 도구들이 그려져 있다.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는 참고래, 흑등고래, 향고래, 큰고래 등 46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고래의 도시 울산에서 고래를 노래하는 가수 남미경

(38)씨를 만났다. 그녀가 부른 고래에 대한 노래는 ‘고래를 기다리며’ ‘장생포 김씨’ ‘장생포에서 청진항까지’ ‘어머니의 고래’ 등이 있다.

울산에 다시 고래가 돌아오길 바라며 노래를 부른다는 그녀. “고래가 돌아온다는 것은 환경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생명운동 자체가 환경 운동이고, 환경이 좋아져 자연적으로 먹이사슬이 갖춰지면, 고래가 많아지겠죠.”

울산에는 고래 박물관과 고래 연구소가 있다. 하지만 그런 곳들이 ‘고래 운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고래 쇼가 아니고, 밍크고래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수족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쇼를 위한 고래가 아니어야 하죠. (반구대 암각화)그림에 그려져 있는 고래들은 멸종된 것이예요. 아이들에게 왜 고래가 돌아와야 하는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영담한지미술관 직원·수련생·행자모집

전통한지 전문가 영담스님 문하에서 한지제작 기법과 미술관 운영 및 한지 미술작업을 돕고 배우며 함께 수행할 신심있는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직 원 0명

- ▷ 4년제 미술과 혹은 관련학과 졸업자
- ▷ 석사학위 소지자
- ▷ 큐레이터 희망자
- ▷ 45세 미만의 남녀

수련생 00명

- ▷ 한지 제작, 한지 천연염색 미술작업을 배우고 수련 하실 분
- ▷ 미술관 운영을 돕고 자원봉사 하실 분
- ▷ 연령 제한 없음

행 자 0명

- ▷ 출가 입산하여 영담스님 문하에서 전통한지 제작기법을 전수 받고 수행 정진할 뜻이 있는 분
- ▷ 40세 미만의 여성

※ 응모요령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씩을 2007년 10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후 면접 개별 통지 함.

※ 접수처

714-883 경북 청도군 문문면 방음리 746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보갑사 영담한지미술관 사무실
FAX접수 : 054)373-3138
문의전화 : 054)373-3638



영담한지미술관 관장 영담 합장

THE YOUNGDAM MUSEUM OF HAND-MADE PAPER

제5차 전국비구니회 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서는 회칙 제4장 제11조에 의거 '제9대 회장선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를 공고합니다.

정진과 교화에 다망하시더라도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히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51 (2007)년 10월 18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강당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전국비구니회관
- ◆안 건 : 1. 전국비구니회 제9대 회장 선출의 건
2. 기타
- ◆문 의 처 : 전국비구니회 총무소 02)3411-8103~4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 장 명 성